

남구 구도심 방림2동 ‘도시재생’…활력 되찾을까

천변좌로 566·574번길 ‘테마 거리’
73·4번지 일원은 ‘안심 골목’ 조성
벽화·CCTV 등 설치…내년 3월 완공

광주 남구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방림2동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테마 거리 및 안심 골목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

각 사업을 위한 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테마 거리는 천변좌로 566번길과 574번길 일원에 조성된다.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해송주간보호센터까지 약 700m 구간 곳곳에는 마을벽화와 경관 조형물, 벽 부조 조형물, 글자와 이미지 등을 빚으로 투사하는 고보라이트가 설치된다.

마을벽화는 방림2동 시니어센터 주변 벽면 2곳에 각각 125m×2m와 3m×22m 크기로 그려지며, 치마붕에 한 때 살았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호랑이와 방림동의 어원인 버드나무가 대상이다.

방림터널 앞 사거리 공터에는 긴 울타리를 배경으로 경관 조형물이 들어선다.

17m가량의 울타리에는 브랜드의 시각적 정

체성을 이루는 반복적이고 특징적인 ‘그래픽 모티브’가 적용돼 ‘방림2동 뽕뽕다리 마을’이라는 명칭이 밤에도 빛날 수 있게 구성된다.

또 휴식용 벤치와 LED 조명을 갖춘 쉼터 등과 함께 경로당과 학교, 관공서 위치를 가리키는 인공 나무 조형물도 생길 예정이며 경관 조형물 중앙의 포도존은 알파벳과 하트 문양, 캐릭터 등이 조합된 형태로 구상됐다.

벽 부조 조형물은 송학맨션 앞 27m 담장 위에 그래픽으로 연출한 광주천 물결 모양과 뱃나무의 꽃과 잎사귀 등을 길게 펼치는 형태이며 고보라이트는 방림2동 경로당과 시니어센터 주변 골목길 4곳 지점을 비춘다.

안심 골목 조성 사업은 방림동 73·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곳곳에서 펼쳐진다.

보행 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범죄 예방 디자인(CPTED)이 도입되며 주요 도로 및 어두운 골목길에는 보안등, CCTV, 안심벨이 생긴다.

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위에 색과 문양, 미끄럼 방지 기능을 더한 도막형 바닥재와 아스콘 포장 공사도 실시된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방림2동은 밝고 활기찬 테마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추진에 박차를 가해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형우기자



광주 서구는 최근 서구아너스 1주년 기념식을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가졌다. <광주서구 제공>

‘출범 1주년’ 서구아너스 기념식…“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국 첫 지자체 주도 고액기부자 모임
103명 가입 속 후원금 35억여원 달해

광주 서구는 “최근 서구아너스 1주년 기념식을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아너스는 서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지난해 출범 이후 매월 주제별 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서구아너스는 ▲다문화 가정에 ‘엄마 나라 보내주기’ ▲가족 돌봄 청년 장학금 전달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장애인 부부 결혼식 지원 ▲폐지 수거 어르신 쉼 지원비 후원 ▲관내 청소년과 함께하는 ‘독도 원정대’ 등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서구아너스 가입 현황은 103명, 후원금은 35억여원이다.

1주년 기념식에서 서구아너스는 기존 회원

이 새로운 기부자를 초청해 가치와 활동을 공유하는 ‘MGM데이(한 사람 한 사람을 더하는 회원 배가운동)’를 선언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메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년 전의 첫걸음이 이제 100명의 큰 걸음이 돼 따뜻한 길, 모두가 행복한 길을 열고 있다”며 “나눔이 일상이 되는 착한 도시 서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스마트 관광 플랫폼 ‘광주아트패스’ 가입 2만명 돌파

출시 1년2개월여만…가맹사 299곳
임택 동구청장 “관광객-지역 상생 힘”

지역 관광 자원과 골목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광주아트패스’의 가입자가 출시 1년2개월여 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이달 1일 광주아트패스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2만1천13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29일 정식 출시된 광주아트패스는 이용자의 스타일에 맞춰 맞춤형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

지역 가맹사는 299곳인데, 이를 바탕으로 ▲동구 주요 미술관·박물관을 8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패스’ ▲동명동 인기 카페를 합리적 가격으로 즐기는 ‘동명 커피패스’ ▲지역 맛집을 테마로 한 ‘미미패스’ 등 다양한 상품이 선보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막을 내린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관광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에 1천건 전량 판매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구는 이번 성과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만번째와 바로 전·후 가입자에게 ‘동구랑페이’와 ‘동구칠성 예술골목여행’ 체험권을 증정하는 축하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광주아트패스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아트패스는 단순한 관광 플랫폼을 넘어 지역 문화와 골목 상권을 잇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 관광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북구,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꿈나무복지관서 선언문 낭독·공연 등

광주북구는 16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을 앞두고 17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후 4시 우산동 소재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모두의 아이, 모두의 책임. 아동학대 없는 북구, 우리 함께해요!’를 주제로 관련 기관 관계자와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부모 교육으로 진행되며 9세 미만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한다. 기념식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선언문 낭독 ▲기념공연 ▲희망의바람개비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신고 안내, 체험·먹거리 부스 등도 운영된다. /윤찬용기자



광산구, 아동권리 미술전시회 개최

오는 19일까지 송정다누리센터서

광주 광산구는 16일 “송정다누리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가족애플’에서 오는 19일까지 ‘아동권리 미술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진> 삼성전자광주어린이집과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는 아동권리주관을 맞아 아이들이 놀이와 참여를 통해 바라는 광산구의 모습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출품작들은 ▲9·3송정역시장 ▲경암근린공원 ▲마한유적지 등 광산구 곳곳을 배경으로 하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느낀 행복의 순간이 재해석됐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개관식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도슨트로 참여해 작품 설명을 맡아 전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표현하고, 지역사회가 그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자리”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